

통상연구실

이근화 연구원

02-6000-5263, kunalee@kita.net

박지은 수석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한·베트남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하며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 플라스틱제품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역시 증가하였다. 수입 또한 의류, 전자제품, 식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FTA 발효 이후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원산지기준 완화, 1년 이내 사후관세적용 명문화 등의 규정개선을 통해 우리 업계의 베트남 무역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01. 한·베트남 무역동향

- ◎ 한국의 베트남 무역은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기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1-10월 중 368억 달러를 기록
 - 對세계(-8.9%), 對아세안(-4.0%) 무역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베트남 무역은 16.8%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우리나라의 베트남 무역동향

(단위 : 억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10	증가율		
								베트남	아세안	세계
수출	금액	135	160	211	224	278	264	13.0	-3.8	-8.0
	증가율	(39.5)	(18.4)	(32.2)	(6.0)	(24.2)	(13.0)			
	순위	8	6	6	6	4	4			
수입	금액	51	57	72	80	98	104	27.7	-4.4	-10.0
	증가율	(52.6)	(12.5)	(25.5)	(11.4)	(22.7)	(27.7)			
	순위	23	20	16	15	10	8			
무역	금액	186	217	283	303	376	368	16.8	-4.0	-8.9
	증가율	(42.9)	(16.8)	(30.5)	(7.4)	(23.8)	(16.8)			
	순위	15	14	9	8	4	4			
수지	금액	84	102	139	144	180	161	-	-	-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순위는 2016.1-10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수출) 2016년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13.0% 증가한 2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은 2015년부터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4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함
- (수입) 2016년 한국의 베트남 수입은 전년대비 2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베트남은 2015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8위 수입국으로 도약

◎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편직물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무선통신기기 부품, 의류, TV가 높은 비중을 차지

-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대규모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의류 생산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현지에서 가공/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

한국의 베트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품목	2015	2016.1-10			품목	2015	2016.1-10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금액	증가율	비중
무선통신기기부품	4,109	4,199	18.5	15.9	무선통신기기부품	1,135	1,742	86.2	16.8
집적회로반도체	2,591	3,417	60.1	12.9	직물제 의류	1,644	1,471	3.7	14.2
평판디스플레이	1,129	2,010	106.4	7.6	편직제 의류	575	645	27	6.2
인쇄회로	917	1,068	36.5	4.0	TV 카메라 및 수상기	251	542	245.7	5.2
합성수지	1,110	984	3.2	3.7	컴퓨터 부품	294	316	40	3.0
편직물	977	868	8.0	3.3	칼라 TV	148	279	174.9	2.7
휘발유	187	692	406.3	2.6	기타 신발	249	251	13.3	2.4
기타 플라스틱제품	587	556	11.9	2.1	기타 섬유제품	272	244	9.7	2.4
열연강판	512	439	0.8	1.7	스포츠화	215	212	21.6	2.0
개별소자 반도체	265	418	81.8	1.6	기타 목재류	233	204	5.9	2.0
소계	12,387	14,651	39.6	55.4	소계	5,016	5,906	42.1	57.0
전체	27,771	26,424	13.0	100.0	전체	9,805	10,365	27.7	100.0

주 : MTI 4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02. 한·베트남 FTA 수혜품목의 수출 성과 분석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 대비 1.8%p 상승한 18.5%를 기록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억 달러, %, %p)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1-10			점유율 변화 (B-A)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A)	금액	증가율	점유율(B)	
전세계		1,138	100.0	1,320	100.0	1,478	100.0	1,656	100.0	1,407	2.2	100.0	-
중국	1	288	25.3	369	28.0	437	29.6	495	29.9	402	-1.4	28.6	-1.3
한국	2	155	13.7	207	15.7	218	14.7	276	16.7	260	11.8	18.5	1.8
일본	3	116	10.2	116	8.8	129	8.7	144	8.7	122	1.5	8.7	0.02
대만	4	85	7.5	94	7.1	111	7.5	110	6.6	92	0.3	6.6	-0.07
태국	5	58	5.1	63	4.8	71	4.8	83	5.0	69	3.2	4.9	-0.07

주 : 순위는 2016.1-10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6.1-10월은 잠정치(preliminary) 기준

자료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이 2016년 1-10월 중 전년동기비 11.8% 증가하여 對세계 증가율(2.2%)을 크게 상회하였고 주요 경쟁국인 중국(-1.4%), 일본(1.5%)에 비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냄

-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1위 수입 대상국인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발효 전 13.2%p에서 올해 10.1%p까지 좁혀졌으며, 3위인 일본과의 점유율 차이는 9.8%p까지 벌어짐

- ◎ 베트남은 FTA 네트워크 확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도 호조세

* 베트남 경제성장률(% , IMF) : 6.2('11년) → 5.2('12년) → 5.4('13년) → 6.0('14년) → 6.8('15년)

- 외국기업의 생산기지가 확충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 플라스틱 제품 등 원부자재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 수출 또한 증가

(1) 자동차부품

- ◎ 최근 베트남 자동차시장 확대에 의한 자동차부품 수요증가와 한·베트남 FTA 관세인하 효과가 결합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

- VAMA(베트남 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의 2016년 1-11월 자동차 판매량은 27.1만대로 전년동기비 25.8% 증가

- 반조립제품(CKD, Complete Knock Down) 형태로 수입하여 현지공정을 거쳐 최종 생산 되는 차량은 연간 20.5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95.3%에 달함

- 차체 부분품(HS 8708.29), 기어박스 부분품(HS 8708.40) 등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한·베트남 FTA 2년차 효과로 2-3%p 인하되었으며 5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자동차부품의 對베트남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전세계		한국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수입액	수입액	증가율	점유율			2016	철폐
8708.99	트랙터 및 특수용도 차량 부분품	421.3	207.5	30.7	49.3	태국(27.8)			
-10/21/70	트랙터용 부분품, 연료탱크, 기타부분품						15.0	12.0	2024
8708.29	자동차 차체의 기타 부분품	170.0	15.2	69.0	8.9	일본(42.7)			
-93/98/99	진흙받이(mud guards), 기타부분품						15.0	12.0	2024
8708.40	기어박스 및 그 부분품	192.6	13.8	540.4	7.2	네덜란드(32.9)			
-26	승용차의 기어박스						20.0	17.0	2029
-27/29	화물차 및 기타 기어박스						15.0	13.0	2029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45.6	5.4	74.2	11.8	중국(49.1)			
-19/27	트랙터, 화물 및 특수용도 차량의 차축						10.0	8.0	2024
8708.80	서스펜션과 시스템	24.0	1.1	99.6	4.6	중국(44.2)			
-17/19	트랙터 서스펜션과 시스템 및 기타						7.0	5.6	2024
8708.95	에어백과 부분품	8.1	0.9	61.8	11.4	일본(38.6)			
-10/90	에어백, 에어백 부분품						10.0	8.0	2024

주 : 금액 및 점유율은 2016.1-8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2) 편직물

◎ 의류 원부자재의 수요 증가 및 FTA 관세인하로 對베트남 편직물 수출은 높은 증가세 시현

- 편직물 등을 베트남에서 가공/제조하여 의류로 수출시 관세 환급 대상이지만 한·베트남 FTA 활용시 수입시점에서부터 관세절감을 할 수 있어 수입업체에게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
- 특히 뜨개질 편물(HS 6006.32), 합성필라멘트사 직물(HS 5407.5200)수출의 경우 한국은 2016년부터 무세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은 중·아세안 FTA 양허제의 품목에 해당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

편직물의 對베트남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전세계 수입액	한국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수입액	증가율			2016	철폐
6006.32	기타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편물(염색)	805.6	109.3	27.0	13.6	중국(57.2)		
-10/20	나일론 섬유 메쉬, 탄성제품						12.0	0.0 2016
5407.520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염색)	341.4	40.2	61.4	11.8	중국(52.8)	12.0	0.0 2016
5407.9200	기타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염색)	74.1	33.0	35.7	44.5	중국(20.0)	12.0	0.0 2016
5512.1900	기타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	97.0	27.4	16.5	28.3	중국(62.9)	12.0	9.6 2024
5407.9400	합성필라멘트사 직물(날염)	12.8	11.8	26.8	92.6	중국(3.2)	12.0	0.0 2016
6307.9090	기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	52.7	7.7	96.6	14.7	중국(57.2)	20.0	0.0 2016
6001.2200	인조 섬유로 만든 파일편물	29.5	7.1	36.0	24.2	중국(33.7)	12.0	0.0 2016
5210.3900	면직물(염색 면85% 미만·200/m ² 이하)	22.2	6.8	82.2	30.5	중국(54.6)	12.0	7.2 2019
5515.1900	기타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섬유 직물	19.2	5.5	141.6	28.7	대만(28.9)	12.0	4.0 2017
5512.2100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85% 이상)	5.9	5.4	19.1	91.3	중국(8.7)	12.0	0.0 2016
5209.3200	3올 또는 4올의 능직물	49.7	4.0	44.1	8.1	일본(34.8)	12.0	0.0 2016
5210.3100	평직물	28.6	3.9	86.1	13.5	중국(58.1)	12.0	0.0 2016
5603.9200	기타 부직포(25g/m ² 초과·70g/m ² 이하)	25.3	3.6	41.9	14.2	중국(67.7)	12.0	9.6 2024
5515.9100	합성스테이플 섬유(인조필라멘트와 혼방)	4.4	3.1	92.2	69.1	중국(25.1)	12.0	0.0 2016
5407.9100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	5.8	2.9	29.1	49.9	중국(27.5)	12.0	0.0 2016

주 : 금액 및 점유율은 2016.1-8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3) 전기제품 및 기계류

◎ 베트남 내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관련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

- 텔레비전·디지털·비디오 카메라(HS 8525.80)의 경우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이 362.2% 증가 하면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전년대비 31.5%p 상승한 61.7%를 기록

전자기기 및 기계류의 對베트남 수출 현황 ①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전세계 수입액	한국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수입액	증가율			2016	철폐
8525.80	텔레비전·디지털·비디오 카메라	190.4	117.5	362.2	61.7	중국(16.2)		
-10	웹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15.0	12.0 2024
-40	텔레비전 카메라						5.0	4.0 2024
8544.49	기타 절연, 전선, 케이블	267.0	36.1	20.1	13.5	중국(49.4)		
-23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						15.0	12.0 2024

전자기기 및 기계류의 베트남 수출 현황 ②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전세계 수입액	한국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수입액	증가율			2016	철폐
8536.50	기타 전기회로 스위치	96.9	35.0	33.8	36.1	중국(21.6)		
-33/39/40	스토브, 전자렌지, 밥솥·토스터용 스위치						15.0	9.0 2019
-61/69	가정용 500V 미만 기기 스위치						15.0	9.0 2019
-92/95	전기용 팬, 전기모터·휴즈의 스위치						15.0	9.0 2019
-99	기타 스위치						10.0	8.0 2024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부분품	44.0	21.1	13.2	48.0	중국(19.1)		
-29	접시 안테나(텔레비전용 제외)						10.0	6.0 2019
-30	텔레비전·라디오 수신용						15.0	9.0 2019
8481.90	탭, 코크, 밸브	97.5	20.6	91.6	21.1	일본(38.0)		
-21	수도꼭지용 몸통						10.0	0.0 2016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	132.8	17.9	28.5	13.5	중국(66.2)		
-91	피폭된 것으로 지름이 19mm 미만						17.0	12.0 2024

주 : 금액 및 점유율은 2016.1~8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4) 화장품, 의약품 포함 화학제품

● 화학제품의 경우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중간재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과 같은 소비재에서도 수출이 확대됨

- 미용·메이크업 제품(HS 3304.99), 의약품(HS 3004.99)은 최대 4%의 FTA 관세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각각 40.7%, 25.4%의 수출증가율을 보임

화장품, 의약품 포함 화학제품의 베트남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명	전세계 수입액	한국		경쟁국 점유율	MFN	FTA	
			수입액	증가율			2016	철폐
3304.99	기타 미용·메이크업 제품	82.8	32.2	40.7	38.9	일본(12.5)		
-20	여드름 억제 크림						10.0	8.0 2024
-30/90	얼굴용 크림, 기타 제품						20.0	16.0 2024
3307.3000	목욕용 제품	8.2	0.7	72.7	8.9	말련(74.1)	20.0	16.0 2024
3004.20	의약품	156.1	16.8	25.4	10.8	영국(15.7)		
-31/71	복용용, 기타제품						5.0	4.0 2024
-32	연고형태						5.0	3.5 2021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388.7	76.5	66.7	16.0	중국(33.1)		
-10/20	어망용 짜, 팬과 핸드스크린 손잡이						15.0	0.0 2016
-53	전동용·컨테이너벨트용 벨트						6.0	0.0 2016
-89	기타 제품						12.0	0.0 2016
3919.10	플라스틱제 접착성 판, 시트, 필름, 박	70.7	26.6	37.6	37.6	중국(28.6)		
-10	기타 제품						15.0	0.0 2016
3921.11	스티렌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제 제품	5.2	2.3	276.1	44.3	중국(46.2)		
-20	경질의 제품						6.0	0.0 2016
3920.6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플라스틱제 제품	12.5	2.3	296.5	18.2	중국(54.7)		
-90	기타 제품						6.0	0.0 2016
3306.10	폴라카보네이트로 만든 플라스틱제 제품	6.7	1.1	43.7	15.9	태국(26.3)		
-10	플레이트와 판						20.0	0.0 2016

주 : 금액 및 점유율은 2016.1~8월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ITC) - Trade Map,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03. 한·베트남 FTA 활용 사례

- ◎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 미흡했던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여 우리 업계의 한·베트남 FTA 활용 가능성을 높임
 - 한·베트남 FTA는 ① 한·아세안 FTA의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철폐하고, ②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업계의 FTA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③ FTA 협정문 상 수입 후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FTA 활용 편의를 제공하였고, ④ 상호대응세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수출업계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POINT

기존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로 수출 확대

- ◎ 한·아세안 FTA의 경우 베트남의 對한국 수입 86.3%에 대해 최장 2018년까지 관세철폐가 예정되었으나, 한·베트남 FTA를 통해 6.1%p를 추가 개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對한국 수입의 92.4%에 대한 관세가 15년 내에 철폐될 예정임
 - 베트남은 자동차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총 272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

인터뷰 전문무역상사 드림코퍼레이션(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수출 물량 결정

전문무역상사인 드림코퍼레이션(주)은 식음료,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 한국의 우수상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드림코퍼레이션(주)에 베트남 바이어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드림코퍼레이션(주) 수출관계자는 도소매업자에게 납품되는 저가제품은 바이어가 크게 개의치 않지만, 고가상품을 다루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바이어의 경우 FTA 활용을 위한 서류지원 여부는 오퍼가 실제 수출로 연결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고급제품으로 인식되는 화장품, 어린이 관련 제품(간식, 견과류), 울무차, 두유 등 건강음료에 대해 바이어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바이어가 관세절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문물량을 확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베트남 FTA를 통한 수출규모의 확대는 자연스레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직원은 국내 본사 3명, 해외 지사 5명으로 소규모이지만, 늘어난 수출물량을 담당할 신규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최소 10명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드림코퍼레이션(주)의 장정미 대표는 “좋은 상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은 어느 업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이어가 관심 있는 것은 수출자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입시 FTA 관세혜택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여부예요. 저희 드림코퍼레이션에게 있어 한·베트남 FTA는 다른 수출 기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 한국 드림코퍼레이션(주) 방문 인터뷰 -

POINT

원산지기준 완화로 FTA 활용 가능성을 확대

- ◎ 한·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준용한 가운데, 한·아세안 FTA 대비 460여개(약 9%)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개선되어 FTA 활용성 및 가능성이 제고됨
 - 기계, 전기기기, 섬유·의류, 농수산물식품에서 FTA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원산지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됨

인터뷰 치킨 소스류 수출하는 ‘돈치킨’ 향후 5년 내 관세절감 누적액 약 21억 원 기대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에 문을 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돈치킨’은 1호 가맹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매장을 베트남에 오픈했고, 현지 치킨 수요의 급증으로 2020년까지 160개 신규 매장 오픈을 예상하고 있다.

2015년 베트남 가맹점 오픈 후 한국 돈치킨은 호치민/하노이의 마스터 프랜차이즈에게 핫소스, 허니머스타드소스, 매운소스, 마늘소스 등 소스류 16종을 베트남에 수출하게 되었지만 한·아세안 FTA의 관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33%의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 해당국의 사업자에게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로열티를 본사에 제공하는 방식
그러나 때마침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베트남 FTA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어려운 “제7류/제9류 재료는 완전 생산” 조건이 삭제되면서 한·베트남 FTA에서 원산지기준 충족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출자(본사)는 베트남 측 바이어인 마스터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관세 절감을 통해 수출 마진 개선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수출자와 수입자가 함께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관세절감 혜택을 공유 하게 되는 성공적 결과를 가져왔다.

• 소스류 16종의 원산지 기준		• 소스류 16종의 베트남 관세율 현황			
① 한·아세안 FTA	- 4단위 세번변경+제7류/제9류 재료는 완전생산 - 부가가치 40% 이상+제7류/제9류 재료는 완전생산	품목	HS	MFN	FTA
					'16-'17년 '18년
② 한·베트남 FTA	-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간장소스	2103.10.10	33%	0% 0%
		칠리소스	2103.90.10	30%	0% 0%
		혼합조미료	2103.90.40	30%	10% 0%
		기타소스류	2103.90.90	20%	10% 0%

돈치킨 수출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에 비해 한·베트남 FTA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식품업계에서 체감하는 한·베트남 FTA 효과는 매우 큼니다. 올해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FTA를 적용했기 때문에 관세 절감액이 1.7만 달러에 그쳤지만 향후 적용 품목 확대와 5년간 신규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누적 관세절감액은 182만 달러(약 2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한국 돈치킨 방문 인터뷰 -

POINT

베트남 측의 FTA 특혜적용 절차 변경에 따라 1년 이내까지 사후적용 가능

- 올해 9월 14일부터 베트남 측의 FTA 특혜적용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후 1년 이내까지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해짐

* ‘FTA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경우 FTA 관세혜택 없이 먼저 수입한 뒤 나중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FTA 관세를 적용 받음으로써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

- 베트남의 FTA 사후적용에 관한 국내법 미비로 기존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옴
- 올해부터 베트남 정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베트남 재무부, 12802/BTC-TCHQ, '16.9.14.), 한·베트남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을 요청을 통해 1년 이내까지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해짐(13959/BTC-TCHQ, '16.10.4.)

- 다만 한·아세안 FTA 등 그 외에 베트남이 체결한 여타 FTA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시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 환급이 가능

인터뷰 한·베트남 FTA의 경우 1년 이내까지 FTA 사후적용 가능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이 체결한 모든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 환급을 올해 9월 14일부터 제한했습니다. 이에 한·아세안 FTA를 비롯한 베트남의 여타 FTA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FTA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베트남의 수입업자가 한·아세안 FTA 활용시 FTA 세율 사후적용을 받기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한·베트남 FTA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사후적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한·베트남 FTA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FTA종합지원센터 베트남 FTA 활용 담당 관세사 -

POINT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의 폐지로 시장접근성 개선

- 한·아세안 FTA 상의 상호대응세율 제도가 한·베트남 FTA에서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동 제도로 인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56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
 - 한·아세안 FTA의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에 따라 비록 베트남이 해당 품목을 양허했다라도 한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품목의 관세철폐를 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베트남 측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해 왔음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560개 품목에 대해 FTA 세율(0-10%)이 적용되었고 2018년까지 모두 철폐될 예정이며, 닭고기 관련 여타 6개 품목은 8년에 걸쳐 20-40%의 관세가 균등 철폐된 후 2022년부터는 무세를 적용받게 됨

04. 한·베트남 FTA 이후 주요 품목별 對베트남 수입 현황

- 베트남이 한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1%로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0.9%p 증가하여 2015년 10위에서 올해 8위로 도약
 - 기존 무관세품목인 무선통신기기부품 이외에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식품류 등 주력 수입 품목에서 FTA 관세효과에 따른 수입 증대가 나타남

(1) 식품류

- 새우, 캐슈넛 등의 견과류 및 음료제품의 경우 FTA 관세혜택으로 對베트남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

식품류의 FTA 발효 이후 對베트남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p)

품목	HS	관세율		2015			2016.1-10			점유율 변화	
		MFN	FTA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베트남	경쟁국
새우류	0306.17-9090	20	0	35.4	-19.6	21.6	36.6	40.8	27.7	6.1	에콰도르(2.9%p), 태국(-3.2%p)
캐슈넛	0801.32-0000	8	4.8	2.8	-8.3	9.3	10.3	373.9	32.3	23.0	인도(-26.0%p)
기타견과류	2008.19-9000	45	0	21.1	186.2	26.3	22.1	28.1	33.2	6.9	미얀마(-9.6%p), 미국(-1.3%p)
자몽주스	2009.29-0000	30	0	0.1	-	0.9	1.7	1,879.1	0.9	17.2	대만(-27.7%p), 미국(5.6%p)
감귤주스	2009.31-9000	54	5	0.01	-	3.5	1.2	10,273.4	47.8	44.3	필리핀(-33.0%p), 일본(-8.8%p)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새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냉동새우(HS 0306.17) 제1위 수입 대상국으로 한·베트남 FTA로 저율관세 쿼터가 확대되면서 냉동새우 중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기타 새우(HS 0306.17-9090)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0.8% 증가해 점유율이 27.7%로 상승
 - * 새우는 TRQ(저율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11,000메트릭톤에 한해서 무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 물량에 대해 현행관세(20%)를 유지. 2016년 1-9월 TRQ로 들어온 새우(0306.17-9090)는 523톤 가량임
- (캐슈넛 및 기타 견과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캐슈넛(8%) 및 기타 견과류(45%)의 경우 기존 수입국인 인도, 미얀마, 미국 등에서 베트남으로 수입선이 전환됨에 따라 베트남의 점유율이 각각 23.0%p, 6.9%p 상승
- (음료) 자몽주스, 감귤주스 등 음료 품목에서 對베트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 급증하며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

(2) 섬유 및 의류

- ◎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진출로 베트남에서 봉제 공정을 마친 의류가 국내로 다시 수입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어 섬유사 및 의류의 對베트남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면사) 지난 3년간 對베트남 면사수입이 연평균 10.4% 감소하였으나, 최근 국내 원사가격 상승으로 수입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對베트남 면사수입이 FTA 발효 10개월간 22.7% 증가
- (의류) 베트남에서 봉제공정을 거친 의류제품의 對한국 수출이 전년동기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시장 점유율도 두자릿대 이상 상승함

면사 및 의류제품의 FTA 발효 이후 對베트남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p)

품목			HS	세율		2015			2016.1-10			점유율 변화(B-A)
				MFN	FTA	금액	증가율	점유율(A)	금액	증가율	점유율(B)	
면사	면 함유량 85%이상		5205	1/8	0	35.7	-9.2	10.9	62.6	118.0	22.7	11.7
편물 의류	합성 섬유로 만든 것	남성바지	6103.43	13	0	12.9	-11.1	19.4	25.3	119.3	30.7	11.4
		여성재킷/치마	6104.33/53	13	0	3.2	24.1	17.8	6.6	109.3	37.1	19.3
		남성셔츠	6105.20-1000	13	0	19.0	21.3	43.3	38.2	109.4	59.6	16.3
		남성속옷	6107.12-1000	13	0	2.2	5.5	8.2	6.6	228.5	20.6	12.4
	면제	남성셔츠	6105.10	13	0	10.5	-19.9	16.2	12.4	40.4	25.3	9.1
		폴오버/카디건	6110.20	13	0	15.1	46.4	7.7	30.4	147.6	15.4	7.6
		기타의류	6114.20	13	0	11.8	-23.2	24.7	12.1	25.9	31.3	6.6
	티셔츠		6109.90-3010	13	0	35.8	67.4	19.6	71.6	134.3	34.5	14.8
비편물 의류	기타 여성바지		6204.69-9000	13	0	4.2	64.1	10.5	10.2	178.6	25.2	14.7
	면제의 남성셔츠		6205.20	13	0	13.1	8.5	8.2	22.8	96.5	18.1	9.9

주1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주2 : 2016.1-10월 對베트남 수입액 기준으로 면사(HS 5205)의 가중평균관세율은 6.6%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3) 전자제품

- ◎ 삼성, LG, 인텔, 파나소닉 등 글로벌 전자기업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조성하면서 2015년부터 베트남으로부터의 전자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시장에서 베트남 제품이 중국산을 대체

전자제품의 FTA 발효 이후 베트남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p)

품목군	HS	관세율		2015			2016.1-10			점유율 변화	
		MFN	FTA	금액	증가율	점유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베트남	경쟁국
TV카메라	8525.80-1090	8	0	249.0	4.3백만	36.0	533.4	240.3	56.2	20.3	중국(-18.5%p)
LCD TV	8528.72-2020	8	0	66.2	362.9	43.8	218.0	507.1	56.1	12.4	중국(-2.5%p), 멕시코(-5.7%p)
마이크/이어폰	8518.30-9000	8	0	33.0	259.1	18.4	42.4	48.9	29.0	10.6	중국(-3.1%p)
배터리충전기	8504.40-3090	8	0	0.5	407.4	2.4	17.8	45,413.9	35.3	32.9	중국(-15.9%p), 태국(-6.9%p)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05. 결론 및 시사점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무역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수출은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 플라스틱제품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비재 수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베트남이 한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1%로 지난해 10위에서 8위로 두 계단 상승하였으며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 FTA 수혜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함
- 한·베트남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베트남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잔존 관세가 추가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FTA를 활용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시장개방 뿐만 아니라 원산지기준 완화, 1년 이내 FTA 사후적용 규정 명문화, 상호대응세율제도 폐지를 통해 우리 수출업체의 시장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부록1 한국 및 베트남 경제 현황(2015년)

	명목 GDP(십억 달러)	경제성장률(%)	1인당 GDP(달러)	인구(백만 명)
한국	1,378	2.6	27,222	51
베트남	191	6.7	2,088	92

자료 : IMF WEO(2016.10월)

부록2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타결 및 서명)	협상중
아세안 차원	중국('05), 일본('08.12), 한국('07.6), 인도('10.1), 호주·뉴질랜드('10.1)	-	홍콩, RCEP
베트남 단독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95) → AEC('15.12), 일본('09.10), 칠레('14.1), 한국('15.12), EAEU('16.10)	EU('15.12.서명, '18년 발효 예정), TPP('16.2.서명)	EFTA, 이스라엘

주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 관세동맹, AEC(아세안경제공동체)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TB 34호, '베트남의 통상전략과 시사점'

2016년 TRADE BRIEF 발간 목록

No.	일자	TRADE BRIEF 제호	작성자
1	02.0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제현정/장상식
2	02.11	CES 2016을 통해 본 ICT 융합제품 트렌드 및 시사점	김정덕/김보경
3	02.18	최근 수출부진 원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부록 :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 모니터링 결과	문병기/류승민/ 강내영
4	03.29	수출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와 시사점	박 솔/심혜정
5	03.14	중국의 M&A 현황과 시사점	이은미
6	03.14	양회(兩會)를 통해 본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김은영/박진우
7	03.17	중남미 BoP 시장의 현황 및 기회	유승진
8	04.06	해외 IoT기술 접목 스마트 제품의 성공전략	김보경
9	04.04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문병기/김건우
10	04.06	개정 정보기술협정(ITA II) 발효 및 시사점	이근화
11	04.26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활용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조빛나/김은영
12	05.16	對중국 수출 언제 회복되는가?	강내영
13	04.29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과 수출 영향	류승민/문병기
14	05.23	경기회복 청신호, 프랑스를 다시 주목하라	정혜선/이근화
15	06.08	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	제현정
16	06.20	한류 확산을 위한 롱테일 전략	김정덕
17	09.09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 문화콘텐츠 유통규제 철폐가 관건	정혜선
18	06.16	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류승민/심혜정
19	06.15	최근 신흥국 경제정책 동향 및 우리 수출의 기회요인	김건우
20	06.27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수출 및 협력 기대 분야는?	박지은
21	07.13	유라시아의 관문, ‘몽골’을 통(通)하라!	박진우/이은미 유승진
22	07.31	한국무역 70년*의 발자취	심혜정/조빛나
23	07.15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 따른 영향과 수출확대 방안	민경실
24	08.22	비관세장벽 넘어 수출길 닦는 농식품 수출	정혜선
25	08.24	K소비재로 수출활로를 뚫자	심혜정
26	09.01	동영상, e커머스의 구원투수가 되다!	김정덕
27	09.09	일본의 인바운드 수출 확대 전략과 시사점	박기임
28	09.06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5가지 불안요인 점검 및 전망	강내영
29	10.05	우리나라 수출 Top3 국가의 수출 비중 변화	심혜정
30	10.17	세계 무역구조 변화와 한국 무역	조빛나/김건우
31	10.18	최근 세계무역 부진 원인과 전망	문병기

No.	일자	TRADE BRIEF 제호	작성자
32	10.25	시행이 임박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장현숙
33	11.01	우리 수출기업이 바라본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	김경훈/김건우
34	11.16	베트남의 통상전략과 시사점	정혜선
35	11.16	한·중미 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	박지은/민경실
36	12.08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정혜선
37	12.08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주요 산업별 동향 및 전망	뉴욕지부
38	12.19	한·베트남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이근화/박지은